

① 해외동향 ①

일본동경전력, 중국에서 자재조달 본격화

동경전력이 해외로부터의 자재조달선으로서 중국메이커를 처음으로 기업등록시켰다. 신규로 등록한 것은 부양스테인레스 등 4개사, 올해 들어 동사의 심사를 받아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자재조달의 대상으로서 수주명단에 오르게 됐다. 동전의 해외조달은 범용부재를 중심으로 아시아전환이 진행돼, 이에 따라 일층 원가절감을 목표로 한 대처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전의 조달선으로 신규등록된 것은 부양스테인레스 상해홍달 한천강사승 상해발몬트등 4개사, 이들 4개사가 이제까지 한국이나 대만메이커가 단골이었던 금속류 등의 분야에 등록함으로써 동전에서도 아시아의 메이커간에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동전의 해외조달선의 등록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98년 말까지의 누계로 65개사, 79개 품목에 달한다. 올해도 10월말 현재 13개사가 새로 등록했다.

올해의 등록은 한국메이커 5개사를 필두로 대만, 중국등 거의가 아시아의 메이커, 종래부터의 모집품목인 전선케이블류 철탑에 대해 한국, 대만메이커가 품목확대를 도모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중국메이커 4개사가 추가 참가한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이나 대만메이커는 국내메이커에 비해 원가 면에서 우위에 있었지만 이제 높은 경쟁력을 가진 중국메이커의 참여로 해외조달에 의한 원가절감이 새로운 단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對유럽, 수출제품 품질 보완해야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조물책임법(PL법) 지침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 지역 수출업체들은 제품의 품질 수준을 보완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EU 집행위가 상품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을 명시한 PL법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지역에 수출

되는 제품의 경우 향후 강화된 법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는 현행 지침을 수정하기 위해 지난 7월 녹서를 발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한 수정안을 이달말경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소비자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거 제시에 있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제품의 결함을 놓고 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떠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 리스크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하게 되면 현행 7천만 유로로 제한된 생산자 배상한

도액이 폐지되면서 책임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또 상품결함 책임에 대한 특별 보험을 의무화 하는 방안과 책임대상자를 포장업체, 운송업체, 창고업체 등 상품의 안전과 관련된 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OTRA는 생산자의 상품에 대한 책임 문제가 기술 장벽보다 심각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 업체들이 EU의 지침 방향을 주시, 이 지역 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품질 강화와 상품 피해 보상체계수립 등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일본, 투자대상국으로 인도보다 중국 선호

인도는 '91년 이후 선진국 다국적 기업체들의 투자 대상 지역으로 관심을 끌고 있으나 아직 일본 업체들은 인도에 대한 무지, 문화적 비친숙성,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중국보다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일본의 對인도 투자 분야로 가장 유망한 분야는 소비재 가전제품 생산 분야로 알려져 있지만 하나 막상 일본의 중소 규모 전자 부품 산업계는 인도 현지에서 생산 시설을 세운다는 생각을 할 때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기초과학 발달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인도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본 국민 정서상 아직 인도는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를 투자 대상 지역으로 선호하고 있다.

반면 일본 업체들은 중국은 진출하기에 어려운 시장이기는 하지만 일본인에게 역사상, 정서상으로 친숙하기 때문에 비즈니스하기에 오히려 편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인도의 만성적 정치 불안, 정부의 경제

개입, 관료주의, 부정부패 등도 일본의 對인도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들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對인도 투자 분야로 가장 유망한 것은 오디오, 비디오 분야로 알려져 있으나 인도의 전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등 여건이 안정되고 이에 따라 인도에 대한 일본 업체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투자는 그리 쉽사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본 업체들의 인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인도 업계, 정부 인사들은 인도 정부의 역할이 종전의 경제 통제 기관에서

지원 기관으로 바뀌고 있으며 실용적인 자유 경제 시스템이 차츰 뿌리 내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전세계 투자액 중 對인도 투자액은 1%에 지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앞으로 인도의 경제개혁이 계속 진행되면서 일본의 투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정치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거나 인도는 서구민주주의 전통이 깊은 나라로 반드시 일본의 투자에 불리한 여건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EU, 역내 에너지시장 경쟁체제 도입 추진

EU는 산업활동의 기본자원인 전력 등 에너지의 역내 회원국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회원국간 에너지시장의 상호 개방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96년 6월 EU 회원국 에너지장관들은 '99년까지 각국의 전력시장을 26.5%씩 상호 개방하도록 합의하고 이를 지침으로 확정, 각 회원국들에게 동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전력시장 개방을 내국법으로 확정해 시행중이다.

그러나 회원국중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는 전력시장의 개방을 미루어 오고 있는데 이에 대

해 EU집행위는 EU차원의 법적인 제재를 준비하고 있어 에너지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집행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국영전력회사인 EDF가 전력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독점으로 축적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EU내 타회원국의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등 EU의 공정 경쟁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EDF는 영국과 독일 등 전력회사에 지분참여 형식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의 전력회사들은 프랑스 시장에 참여가 막혀있어 EU내 타회원국들로부터 프랑스의 전력시장에 대한 개방요구가 거세어져 왔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 프랑스 의회에서는 전력시장을 EU지침에 따라 개방하는 법안이 부결되었으며, 당초 EU가 정한 개방화 시점인 금년말까지 전력시장 개방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해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프랑스의 자국내 전력시장 진출을 금지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EU집행위는 역외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배경으로 프랑스가 EU지침 미준수를 사법재판소에 재소하는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등 프랑스의 전력시장 개방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행위는 전력시장 개방이 금년말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룩셈부르크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EU집행위는 전력시장 뿐만 아니라 가스시장에 대해서도 EU회원국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시장 전체에 대한 공정경쟁체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집행위가 추진하는 에너지시장 개방정책의 근본목적은 공정경쟁을 통한 가격인하와 이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에 있는데, 이는 EU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추진하는 집행위의 주요한 내부시장 정책(Internal Market Policy)의 하나라고 봐야 하겠다.

현재 전력 및 가스 시장 등 에너지 분야의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기업들도 공정경쟁 강화를 위한 EU의 에너지시장 개방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佛, 전력회사 유럽진출 가속

프랑스 전력회사가 유럽 내 다른 전력회사에 대한 매수·출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 최대의 프랑스 전력회사 엘렉트리시테 드 프랑스(EDF)는 독일 전력업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EnBW의 주식 25%를 취득했다. 공익기업인 스에즈 리요네즈 데 조도 자회사를 통해 네덜란드 최대의 전력회사인 에폰을 매수했다. 한편 프랑스가 자국의 전력시장 개방에 소극적인데 대해 역내 각국이 반발, 유럽연합(EU)이 개입하면서 전력산업 재편문제

가 정치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DF의 EnBW주식 취득액은 약 25억 유로, 독일 바이에른 뷔르텐부르크주가 실시한 보유주 매각입찰에서 독일 최대의 전력회사인 RWE를 누르고 낙찰받았다. EDF는 지난해에 영국의 런던 일렉트리티티를 12억 프랑에 매수했었다.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력을 저렴한 가격에 역내 각국에 공급하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스에즈 리요네즈는 96%를 출자하는 벨기에

공공기업 트락트벨 계열 전력회사를 통해서 에폰의 주식 80%를 약 22억 유로에 매수했다. 에폰은 천연 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많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기업용 수요를 개척할 구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프랑스 의회는 11월 수요자가 전력회사를 유럽 역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화 조치를 부결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전기시장 독점체제를 중식시키기 위한 '96년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프랑스에 대해 지난달 24일 위반조사 조치에 들어갔다. 조사결과에 따라 EU가 프랑스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으며 EU 회원국들은 프랑스 국영 전기회사인 EDF에 각종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은 자국의 전기를 프

랑스 공급망을 통해 판매할 수 없게 될 경우 EDF를 공동으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EU의 전력시장 자유화 지침에 따라 프랑스와 함께 최대의 전력시장중 하나인 독일에서도 전력업체 재편과 역내 진출이 추진되고 있다. 대형 전력회사인 페바는 지난 7월 네덜란드 제4위의 전력회사인 EZH를 매수했고 국내 대형 동종 업체에 대한 합병 계획도 표면화 하고 있다.

경쟁을 전제로 한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이 각국의 전력시장을 프랑스 기업에 내어주고 있는 반면 프랑스가 자국 시장에 대해서는 폐쇄적이면서 일방적으로 국제 진출을 도모하게 되면 독일뿐만 아니라 EU 가입 각국의 반발이 한층 심해질 것은 확실하다.

요르단, 직업훈련 시설 현대화 적극추진

2000년에는 요르단 직업훈련시설 현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정비, 전기전자수리, 금속가공, 목공, 화공, 건설, 호텔레스토랑분야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용품들을 새로 구입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할 것으로 보여 동 분야 진출이 유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요르단 직업훈련은 노동부산하 국영기업인 직업훈련공사(Vocational Training Corpor-

ation ; VT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에 걸쳐서 40개의 상설훈련센터 및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4,700개 중소기업들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VTC의 직업훈련분야는 자동차정비분야(자동차정비소, 트럭, 버스, 승용차정비 및 수리), 전기전자분야(전력엔지니어링, 사무기기관리, TV, 오디오수리), 금속가공(절삭, 연마,

용접, 밴딩, 성형), 목공(건물내장, 가구), 건설(건축, 토공), 화공(세제, 플라스틱, 페인트, 화장품생산), 호텔레스토랑분야(제빵, 제과, 케이터링, 서비스), 기타분야(비서, 판촉, 양장, 메이크업) 등이 있는데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계, 시설, 샘플, 재료 등 여러 분야에 우리의 진출 여지가 많다.

VTC는 주로 연중수시 공표하는 공개입찰을 통해 기계, 설비, 자재 등을 구입하거나 소량다품종 구입의 경우에는 현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조달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요르단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해외기관으로는 World Bank, Ilo, Hanns Siedel Foundation, Swiss Compnies, 프랑스 노동부, 일본 JICA, 캐나다 CIDA를 비롯해 예멘, 튀니지, 모로코, 바레인 등 중동국가들이 있다.

VTC는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고, 기계, 설비, 자재 공급뿐만 아니라 기술전수 등 우리나라가 참여할 분야가 많다. 요르단 시장자체만이 아니라 요르단을 발판으로 해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 등 인근 중동시장으로 진출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요르단 경제 개혁에 깊숙이 참여함으로써 향후 중동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VTC를 통한 요르단 시장진출 확대시 유의할 사항이 몇가지 있다. 첫째, 단순히 기계, 설비, 자재 수출로 단기적 이익을 목표로 해서 는 안된다. 직업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요르단 경제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VTC가 필요한 기계, 설비, 자재들은 소량다품종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 1개사가 취급하기에는 품목이 너무 많고 주문량도 적어 큰 매리트가 없다.

장기 전략적차원에서 KOICA, 진흥회, 중합무역상사 등이 협력해 합동으로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요르단직업훈련공사 연락처

- P.O. Box 925837 Amman 11101, Jordan
- 전화 : +962-6-585-8481
- 팩스 : 582-0351
- E-Mail : vtc@amra.nic.gov.jo

스웨덴, 제1기 원자로 가동 전면중단

스웨덴은 지난달 30일 자정을 기해 바세백 (Barseback) 원자력발전소 제1기 원자로 가

등을 완전 중지했다.

지난 '75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이 원자로는 지난 24년간 전력생산을 위해 힘써왔으며, 연간 발전용량은 615MW로 스웨덴 전체 원자력발전의 7.8%에 해당된다.

스웨덴내 원자력 발전소는 바세백(Barseback), 링할스(Ringhals), 포스마르크(Forsmark),

오스카스함(Oskarshamn) 등 4곳으로 총 12기의 원자료가 있는데, 이번에 가동이 전면 폐쇄된 바세백원전의 제1기 원자로는 국내 원자력발전 사상 초유의 폐쇄로 지난 '98년 7월 1일을 기해 폐쇄키로 한 의회결정을 17개월 동안 끌어온 후에야 실시되었다.

미국, 디지털 電球 인기

디지털 전구가 보스턴 소재 소규모 회사인 Color Kinetics Inc.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그동안 이 회사가 투자한 노력과 상품화된 기발한 아이디어의 디지털 전구는 이미 디즈니 랜드, 보스톤 심포니 홀, 그리고 Brookstone, Saks Fifth Avenues, Nine West와 같은 유명 소매점들에 설치되고 있다.

이 디지털 전구는 한 전구 안에 수십여개의 LED(Light Emitting Diodes)가 내장되어 있어 1,670만개의 빛깔을 발산한다. 기존의 백열 전구 수명이 1천시간 정도인 반면에 이런 디지털 전구의 수명은 10만시간(11.4년)

정도 지속된다.

이 디지털 전구에는 프로그램된 마이크로 칩이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색상을 조정할 수 있고 시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색상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디지털 전구의 밝기나 크기를 조정, 생산하는데 있어 기술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높은 가격 또한 앞으로의 시장성을 가름할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전구는 5W 정도의 빛을 발하며 가격은 개당 159달러이다.

아시아개발은행, 방글라에 1억5천만弗 차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방글라데시 대카시 전력 자급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에 1억5,700만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차관 제공과 관련, 방글라데시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간의 협상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2005년 이후 대카시의 전력 부족 사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화된 전력 공급 시설로 인한 전력 漏失도 현재의 25%에서 2003년 이후에는 18%로 줄어들 것으로 아시아개발은행 전력 분야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대카시 송배전 시설 교체 작업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방글라데시 전력 분야 개발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원 기관인데 이러한 지금까지의 방글라데시 전력개발 분야에 대한 차관이 10억7천만달러, 기술지원이 1,300만달러에 이른다.

내년도에도 아시아개발은행은 방글라데시 정부 및 방글라데시석유공사(Petrobangla)를

상대로 방글라데시 전력 산업 개발 관련 1억2천만달러 차관 제공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지원한 방글라데시 발전, 송배전 프로젝트는 다수인데 지역별로는 대카시 전력 개발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재 대카시는 방글라데시 전역 발전량의 40%를 소비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무조건적으로 차관을 제공해 주기보다는 가능한 한 전력 분야에의 민간 참여 제고를 통한 자유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서남아시아 전체의 전력 분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아시아개발은행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력부문 곧 민영화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 전기부 장관은 거대 전력 우산회사(umbrella company)를 설립함으로써 사우디의 전력 부문이 곧 민영화될 것이라고 공식 사우디 뉴스통신인 SPA가 보도하였다. 뉴스통신은 산업전기부의 Hashem bin Adbullah Yamani 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아주 가까운 장래에 사우디 전기회사(Saudi

Electricity Company)를 창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우디는 작년에 주로 주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적자기업들을 하나의 전력회사로 통합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우디는 매년 전력 수요가 약 16%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과부하 기간에는 여러 차례의 정전사태

를 빚기도 했다. 사우디의 4개 주요 지방 전력회사들은 최근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여 정부의 개입을 요구했었다. 그리하여 Yamani 장관은 전기 세계를 개선시키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면 전력 부문이 정부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발전, 송전 및 배전 부문을 점차 분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발전부문이 자유경쟁 체제로 개방될 것이고 어떤 회사도 배타적 기득권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사우디는 통신부문을 민영화시킨 바 있는데 이번 전력부문의 민영화 계획은 사우디를 포함한 다른 걸프 아랍국가들 전력 산업계가 보이고 있는 공통적인 움직임이다.

◇ 사우디, 2020년까지 전력 부문에 1,170

억 달러 투자 계획

사우디아라비아의 전기부 장관은 14일 급격히 상승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20년까지 1,1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까지 발전설비를 70,000MW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 약 1,168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Yamani 장관은 리야드의 한 세미나 장소에서 말했다. 사우디 정부는 민간부문 사업자가 발전설비 투자비용의 조달을 가능하게 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Yamani 장관은 밝혔다. 사우디의 산업체들은 전력 부족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졌으며 잠재적 해외 투자자들은 발길을 돌렸다고 불평해왔다. 사우디의 전력산업계는 민영화 및 대규모 신규 발전설비 투자에 따라 조만간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2020년까지 범국가적 전력망 구축 추진

중국은 2010년까지 북부, 남부 및 중부에 3대 전력망을 구축하고 2020년까지는 이들 전력망을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범국가적 전력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국가 전력공사(SPC)가 밝혔다.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인 Three Gorges 발전소가 가동을 개시하면 중국 중부와 동부 발전소를 잇는 9,100Km의 대단위 송전공사도 완료될 예정이며 또한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길이 2,000Km의 중부 중국

전력망(CCPG)의 Sichuan성 송전망 건설공사도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 국가 전력망은 중국 북부, 북서부, 남부 및 중부를 잇는 송전망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Hebei성과 Liaoning성을 잇는 50KV 송전 프로젝트는 중국 북동부와 북부를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중국 남부 전력망은 Guangdong, Guangxi, Yunnan 및 Guizhou성을 연결하는 것으로

이미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다. 2000년까지는 각 성을 잇는 500KV 및 330KV 송전망 등 다양한 전력망의 형태에 대한 건설 작업은 2020년까지 범국가적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의 제1단계 작업으로서 이루어지게 된다. 기존의 중국 전력망은 지방 省 단위로 전력 공급을 자립하도록 구축되었지만 이들은 Three Gorges 전력 송전망 건설 프로젝트와 더불어 거대하고도 포괄적인 국가 전력망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금년 초반의 6개월 동안 중국은 지방과 도시의 송전망 건설 및 개선 작업을 위해 91억 위안화를 투자하였다. 또한 향후 3년 동안 중국은 전력망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해 2,600억 위안화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의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중국 전력에너지의 생산은 총 7억 5,688만 톤으로 전년대비 5.6%가 떨어졌다고 한다. 발전방식에 따른 변화는 석탄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7억 215만 톤으로 8.5% 감소한 반면 석유 화력발전은 2,708만 톤으로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 출력은 6.2% 증가한 8830.7억KWh를 기록하였으며 화력 발전량은 7.8%가 증가한 7247.7KWh, 그리고 수력은 0.7%가 감소한 1464.5KWh를 기록하였다.

대만, 지진 복구사업관련 수입관세 인하안 부결

대만 경제부는 대지진 발생이후 지진복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전자재 수급동향과 현재 전자재 재고량, 업체들의 생산능력을 파악하고, 향후 고정적인 수요량과 재해이후 1개년 수요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자재 수급상황이 원활해 수입관세를 인하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경제부는 제품수급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었을 때만 관세인하를 통한 수급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조사결과 수급 문제에 있어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아직까지는 관세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이

에 따라 재정부가 제출한 재건사업에 필요한 18개 품목의 전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안을 부결시켰다.

지진발생후 재건사업에 필요한 물자들은 대부분 전통산업에 속하는 제품들이어서 경제부의 수입제품 관세인하안 부결로 대만 국내 업체들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지진특수를 노리던 외국업체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가 정한 18개 전자재 품목에는 시멘트, 철근, L형강, H형강, 아연도금강판, 아연도금강관, 스테인리스강관, 플라스틱수도관, 전

용 케이블, 건축용실(建築線), 형광등관(日光燈管), 전구, 건축용 강선(架空用鋼線), 타일, 위생도기, 판유리, 아스팔트, 자갈모래 등이다.

경제부는 현재 적극적으로 전통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주동적으로 수입관세를 인하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제부가 주요 전자재에 대한 대만업체의 최대 생산량과 재건사업에 필요한 수요

량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수요량 계산에 있어서 2000년부터 3년동안에 필요한 수요량을 기준으로 할 때 1차년도의 수요량이 전체 수요량의 60%로 가장 많이 차지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이에 따라 우리 업체들이 지진특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대만시장 진출을 되도록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